

'사람이 모이는 도시, 청년이 만드는 전주'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 신년 브리핑 통해 청년·인구 정책 추진 방향 발표

전주시가 청년 등 미래세대가 지역에서 일하고 살며 미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일·주거·생활 안정 등 청년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정하고 청년들의 정착이 가속 형성과 지역 정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단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인구감소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인구청년정책국 신년 브리핑을 통해 '사람이 모이는 도시, 청년이 만드는 전주'를 비전으로 한 청년·인구 분야 4대 전략과 15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4대 전략은 △청년의 도전이 기회가 되는 전주형 일자리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기반 구축 △청년이 안심하고 즐기는 활력도시 △모든 세대가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전주를 만들기 위한 인구정책 추진이다.

이를 위해 시는 청년정책과 인구정책을 개발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생애 주기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일·주거·생활 안정 중심의 정책 추진을 통해 모든 세대가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인구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시는 청년의 도전이 기회가 되는 전주형 일자리 구현을 위해 청년



전주시는 인구청년정책국 신년 브리핑을 통해 '사람이 모이는 도시, 청년이 만드는 전주'를 비전으로 한 청년·인구 분야 4대 전략과 15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취·창업 확대와 지역 정착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산된 청년 채용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온라인 전달체계를 구축해 정책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동시에 청년의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위해 △청년취업 2000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지원 △전주기업반 지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을 연계한 진로 탐색부터 취업·장기근속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의 조기 이탈을 줄여 교육부터 취업,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고용 성과를 창출해 나갈

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속 가능한 청년 창업 정착을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해 '준비·개업·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에 나서고 '창업중심대학'과 연계한 교육·멘토링·네트워크를 강화해 지역 기반의 청년 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와의 협력을 강화해 교육발특특구 중심의 지역교육 선도모델을 육성하고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교육자원을 연계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청년 실태조사와 현장의

견 수렴을 바탕으로 청년의 일상에 실제로 닿는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체감 가능한 정책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해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청년정책위원회의 청년희망단, 청년협의체를 연계하고,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운영함으로써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 기회와 결정 과정에 직접 반영되는 참여 구조를 강화한다.

2배 확대된 청년참여예산과 청년인재 DB '청춘전집'을 통해 청년의 정책 제안·실행·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온라인 플랫폼 '청춘지대'를 고도화해 정책·일자리 정보 제공과 소통 가능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이 언제든지 머물며 소통할 수 있는 허브 공간인 청년이음전주도 열린 교류 공간으로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시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민원주택 '청춘★별채' 공급을 지속 확대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청년활력 프로젝트(청춘 is 樂!)'를 추진해 청년의 심리·정서 회복과 공동체 활력 증진을 도모한다.

김은주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장은 "2026년을 기점으로 청년정책과 인구정책이 하나의 도시 전략으로 작동하는 정책 체계를 갖추고, 청년이 정착하고 가족이 머무는,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전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는 10일 헌혈 문화 확산과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 '헌혈 장려 상품권'을 전달했다.

"헌혈은 생명 살리는 나눔"

전주시, 5500만원 상당 헌혈 장려 상품권 전달

전주시가 겨울철 부족한 혈액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시민들의 헌혈 참여를 독려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시는 10일 헌혈 문화 확산과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 '헌혈 장려 상품권'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총 5500만원 상당의 헌혈 장려 상품권은 향후 헌혈 참여자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제공돼 헌혈 참여 동기를 높이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겨울철은 학업·직장 일정과 추운 날씨 등으로 인해 헌혈 참여율이 감소하는 시기다. 실제로 최근 혈액 보유량이 '주의' 단계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헌혈에 참여하며 헌혈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한 바 있으며, 대한적십자사도 헌혈 참여자에게 '두손 쿠키(두바이 존독 쿠키)'를 지급하는 등 헌혈 참여 인원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이러한 사회적 위기와 맞물려 헌혈 장려 상품권 전달식을 통해 헌혈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해 동절기 혈액 부족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가장 직접적인 나눔이며, 시민들의 작은 참여가 큰 희망을 만든다"면서 "앞으로도 헌혈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헌혈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추진

전주시,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교통 대책 상황실 등 운영

다가오는 설 연휴에도 전주시 장애인 콜택시 '이지콜'과 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한 마을버스 '바로몬'이 정상 운영된다. 또 귀성객과 전통시장 방문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된다.

전주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귀성객과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교통편의 제공 및 교통혼잡 해소에 중점을 둔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시는 귀성객과 성묘객,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와 교통 불편 사항 해결을 위해 시청과 완산·덕진구청에 각각 교통 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삼승 정제 구간인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주요 진입로에는 교통

봉쇄 등 일일 8명의 현장 인력을 투입하고, 안내관 등을 설치하는 등 교통 관리에 집중한다.

여기에 시는 한옥마을과 제4주차장(대성주차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5대를 무료로 운행함으로써 한옥마을 제1·2주차장으로 집중되는 차량을 분산시키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귀성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을 명절 연휴 동안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단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한옥마을 공영주차장(제1·2·3, 노덕진구청)에 각각 교통 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삼승 정제 구간인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주요 진입로에는 교통

전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경작지 관할 등 주민센터서 신청

전주시는 영농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처리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영농부산물 처리 과정에서 농업인이 직접 파쇄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파쇄지원단이 현장을 방문해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는 현장 중심 지원사업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모든 농업인으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이달부터 경작지 관할 등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파쇄 대상은 고추·콩·고구마·들깨·참깨·옥수수 등 농작물 수확 후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이며,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오는 3월부터 파쇄지원단이 농가의 작업 여건과 시기를 고려해 현장을 방문해 파쇄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사업은 오는 11월 말까지 운영된다.

시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고품농업인과 장애농업인, 여성농업인, 소규모 농가 등 영농부산물 처리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농가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취약 농업인의 현장 부담을 효과적으로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을 줄여 산불 및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는 것은 물론, 파쇄된 영농부산물을 퇴비로 활용해 토양 환원 등 농업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평화통일 기반 조성·국민 공감대 확산 공로

전주시의회 최주만 부의장·박혜숙 문화경제위원장, 민주평통 의장 표창

전주시의회 최주만 부의장과 박혜숙 문화경제위원장이 10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표창 전수식에서 의장상을 수상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92조에 근거한 평화통일정책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현재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상은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국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최 부의장과 박 위원장은 각종 정책 간담회와 토론, 시민 참여 활동을 통해 평화와 통합의 가치를 지역에 안착시키고 지역협의회와의 다양한 통일 활동에 참여하는 등 민주평통 발전에



최주만 부의장 박혜숙 문화경제위원장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들 수상자들은 "평화 통일"의 가치인 시민과 함께 이를 확산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지역 현장에서 평화 통일에 대한 공감과 연대를 넓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